

## CAPD 환자의 Peritoneal Fluid Eosinophilia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내과<sup>1</sup>

조영일, 신석균<sup>1</sup>, 송종오

**목적:** CAPD 환자에서 발생하는 peritoneal fluid eosinophilia(PFE)는 대개 특별한 치료없이 자연히 호전되지만, 복막투석액 내의 eosinophilia가 복막기능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임상적 의의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2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 CAPD 환자에서 PFE는 약 60.8%의 발생빈도와 14일에서 150일까지의 지속기간을 보였으나, 최근 저자들이 1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후향적 연구에 의하면 국내에서 PFE의 발생빈도는 12.6개월의 관찰기간 동안 약 4.4%, 지속기간은 평균 2.8일로서 외국의 보고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저자들은 장기간의 전향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CAPD 환자에서 PFE의 발생빈도와 임상적 특징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1년 12월 이후 CAPD를 시작한 환자 38명을 대상으로 CAPD 시작 직후부터 6개월 동안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도관삽입후 처음 투석을 시작한 날부터 1, 3, 5, 7, 14일 및 1, 2, 3, 4, 5, 6개월째에 각각 투석배액과 혈액의 cell count 및 임상증상을 조사하였다. 투석배액과 혈청의 IgE는 CAPD를 시작한 날, 2주 후, 그 이후에는 매달 측정하였다.

### 결과:

1. 38명의 환자 중에서 6개월 동안의 연구를 마친 환자는 34명 (나이=52.2±19.6세, 남녀비=1:1)이었다.
2. PFE는 6개월의 추적기간 동안 34명의 대상환자중 2명 (5.8%)에서 발생하여 약 102 patient-months 당 1예의 발생빈도를 보였다.
3. PFE 1예는 투석 시작 3일 째에 아무런 증상없이 발생하여 2일 동안 지속되었다. 나머지 1예는 투석 시작 37일 째에 발생하여 5일 동안 지속되었고 진단당시 복통이나 열은 없었으나 투석배액이 혼탁하였으며 PFE 발생 2주 전까지 세균성 복막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사용했었다. 두 예 모두 특별한 치료없이 자연히 호전되었다.
4. 혈청 IgE와 peripheral blood eosinophilia(PBE)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으나 ( $r=0.7914$ ,  $p<0.05$ ), PFE 발생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 $p>0.05$ ).
5. 최초 투석시나 PFE 발생 당시의 혈청 IgE, peritoneal IgE 및 PBE는 PFE가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p>0.05$ ). 나이, 성별, 원인 신질환, 기존의 헤파린 혹은 항생제 사용, 복강내 공기 또는 혈액, 세균성 복막염, 알레르기 병력 및 복막투석액의 종류 등도 양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p>0.05$ ).

**결론:** 우리나라 CAPD 환자에서 투석시작 후 첫 6개월 동안의 PFE의 발생빈도는 약 5.8%였으며, 2-5일 지속된 후에 특별한 치료없이 자연히 호전되었다. 혈청 IgE 및 PBE가 PFE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 것은 PFE가 복막의 국소적인 반응임을 시사하는 소견이다.